

한국갤럽의 **영터리 해명**에 대한 반박

- 20대 총선시 실제결과와 다른 경우 **52%** ! 숫자가 보여주는 갤럽의 신뢰도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는 지난 3월 5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정당지지도가나다 순 로테이션의 문제 ▲선거예측 실패사례 ▲유도성 정책설문 ▲편파적 정치현안 설문 등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음.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제정한 「조사윤리강령」 제1조에 따르면, “조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밝히고 있음. 이런 조사윤리강령이 있음에도 한국갤럽이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움.

여론조사 회사가 가져야 할 업무윤리와 책임성을 촉구한 자유한국당의 진심어린 지적에 대해 한국갤럽은 반성과 사과, 시정조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는 식의 조사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영터리 해명만을 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자 함.

갤럽변명 첫째, 정당지지도 정당명 로테이션이 아무 문제없다 ?

여론조작 사례 1

“가나다순 정당명 로테이션”



한국갤럽 해명

“5개 정당을 놓고 100명에게 지지도를 질문하면,
20명은 한국당을 맨 처음 듣게 되는 식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한국갤럽은 현재 ‘가나다’ 순으로 정당명을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로테이션 되지 않는 이상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다음에 불러지게 됨.

시기	로테이션 순서
현재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2월 1주까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순서 로테이션) (2월 4주부터) (<u>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순서 로테이션</u>)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2016년 5월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당 <u>의석 순</u> 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재질문)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이런 지적에 한국갤럽은 “5개 정당을 놓고 100명에게 지지도를 질문하면, 20명은 한국당을 맨 처음 듣게 되는 식”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명했음.

한국갤럽 방식대로라면 80명은 “바른미래당”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듣게 됨.
정당이라는 것은 엄연히 ‘의석수’가 기준 되는 것이 마땅함. 민주평화당은 현재 14명, 바른미래당은 30명, 자유한국당은 116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을 후순위에 놓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정당지지도를 가나다 순으로 측정할 경우 국회의원 의석순이 반영된 현실 정당 지지여론을 왜곡하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다수 여론조사기관들은 의석수 또는 무작위 랜덤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임. 선거시 후보자 여론조사 때에도 가나다 순서로 할 경우 여론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석수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기호순’으로 하는 것임.

작년 대선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설문순서는 가나다 순서에 따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順”이었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정당이고,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당명 개정 이전의 당명을 사용한 정당임. 질문 순서가 이렇게 되니 대통령선거라는 첨예한 상황속에서 범보수의 여론은 설문순서로 인해 분산되어 자유한국당 정당지지도는 하락했고, 낮아진 정당지지도는 보수층 여론결집이 안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 인용되어 당시 보수결집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였음.

여론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문제점 지적에 “규정상 문제될게 없다”는 태도는 정확한 여론을 측정해야 하는 여론조사 회사의 기본 윤리의식마저 의심케 함.

갤럽변명 둘째, 최종예측치가 아니라서 예측실패는 괜찮다 ?

여론조사 사례 2 : 예측실패
 ▲2000년 16대 총선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갤럽 출구조사 광역단체장 6곳 ▲2017년 18대 대선
 📌 **예측 실패**

한국갤럽 해명
 “2010년 지방선거 예측실패는 인정하나, 2000~2008년 총선 조사는 선거직전 조사결과가 아니고, 최종 예측지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로 제시한 예측실패 사례에 대해 최종예측치가 아니라며 선거를 길게 앞두고 조사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는 한국갤럽의 반박은 어불성설임.

우선 2000년 16대 총선 한국갤럽 예측실패 사례는 모 방송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임**. 최고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예측하는 출구조사가 선거 임박이 아닌 선거 아주 이전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국갤럽의 거짓작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함**.

또한, 2004년 17대 총선 비례대표 예측실패도 선거가 있는 그 달인 4월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2008년 18대 총선 비례대표 예측실패는 선거 일주일 전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하여 제시하였음. 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을 고려하면 **선거에 가장 임박한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갤럽의 예측실패 실태를 지적하였다는 점을 강조함**.

2016년 총선의 경우,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들이 새누리당 160석을 예측했으나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으로 여론조사 예측과는 정반대인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람.

참고문헌

새누리 “145석” 주장, 여론조사기관들은 “160석”

각당 상황실 주장하는 막판 판세
 더민주 “100석 미만” 국민의당 “35석”
 조사기관서 “90석과 30석 안팎” 예상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국(이재 포함)	145석 내외	95~100석	35~40석	7~8석
광역별	수도권 40~50석 충청·강원권 25석 영남권 50석 비례대표 18~20석	수도권 60~65석 충청·강원권 5~10석 영남권 10~15석 비례대표 10~15석	수도권 8석 충청·강원권 0석 영남권 20석 비례 10석	수도권 1석 영남권 1석 비례 5~7석

4·13 총선 D-3일인 10일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각각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145석’과 ‘100석 미만’을 관세 분석 결과로 내놨다. 새누리는 과반인 151석 이상, 더민주는 107석이 목표지다. 국민의당만 이날 총선 목표(최소 20~최대 40석)를 달성하는 35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윤용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145석은 확실한 우세 지역뿐 아니라 경합우세 지역과 비례대표 의석 전망치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상황실은 영남 50석, 충청·강원권 25석 안팎,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122석)에서 40~50석을 당선권으로 잡았다. 여기에 비례대표(18~20석)를 합쳐 나온 게 145석이라고 한다.
 더민주 주장선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전국에서 경합우세를 합쳐도 60석, 나머지 수도권 결합지 40곳 가운데 새누리당과 반

씩 나눈다 하더라도 비례를 합쳐 100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현재 시점에서 호남 20석, 수도권 4~5석, 비례 10석 등 35석을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의 예측치는 새누리당 160석, 더민주 30석, 국민의당 30석 안팎이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새누리당은 예상 의석을 낮게 잡은 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압소 전략의 효과, 야권 지지층의 2·3년 가운데 앞뒤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한을 고려대 평화민주연구소 교수는 “지지층 일부가 이탈해도 50, 60대 유권자가 19대보다 306만 명 늘어난 게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공개된 한국리서치와 갤럽 조사에서 나온 국민의당 지지율 상승세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김춘석 이사는 “양당 심판론이 43.5%로 여당 심판론(24.1%), 야당 심판론(20.1%)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1·2번 심판론이 실제 국민의당 의석수로 연결될지도 의미 있는 변수”라고 분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위원회 이지 창조) 이에 국민당은 8석이던 비례대표 목표치를 10석으로 높였고, 새누리당은 18석으로 하향했다.
 서울대 박원호(정치학)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안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대선 전초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미래지향적 투표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미현 알앤씨 소장은 “수도권에선 국민의당 당선권 후보가 많지 않아 지역구는 1·2번, 정당 투표는 3번을 찍는 교차투표(Cross voting) 효과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사-위문희 기자**
 jipn@icongang.co.kr

꺁럽변명 셋째, 조사기관이 의뢰하면 유도성 정책질문도 괜찮다 ?

여론조작 사례 3 : 유도성 정책설문

- 원격질료 설문시 : “오진위험성” “여론수렴 없음” “안정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나열한 후 여론조사 실시
- ODA 설문시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 언급 후 질문



한국꺁럽 해명

“고객사가 내부 참고용으로만 확인할 테니 이런 질문을 던져달라고 부탁해서 만든 것으로 언론공표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었고 공개권한은 고객사만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꺁럽의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후 질문하는 편파적이고 부도덕한 유도성 정책질문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음.

이에 대해 한국꺁럽은 “조사를 의뢰한 고객사가 ‘우리가 내부 참고용으로만 확인할 테니 이런 질문을 던져달라’ 라고 부탁해서 질문을 만든 것” 이라며, “언론 공표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었고 공개 권한은 고객사만 갖고 있었다” 고 해명했음.

나라의 정책은 한번 실행에 옮기면 되돌리기 어렵고 더욱이 원격의료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임이 분명함. 그럼에도 고객사가 의뢰하면 아무런 도덕적 책임없이 여론을 왜곡하는 잘못된 조사를 실행해도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대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앞으로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는 고객사 입맛에 따라 왜곡된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묵과 할 수 없는 사안임.

갤럽변명 닷째, 편파질문에 대해 완벽할 순 없다 ?

여론조작 사례 4 : 편파적인 정치현안 질문

- ▲ 특정정당의 주장만 일방적 설명 ▲ 유도성 보기문항 제시
- ▲ 한쪽의 주장에 대한 부연설명은 길고 자세하게 반면 다른쪽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짧게 ▲ 북한의 장거리 탄두미사일을 광명성 4호라고만 언급
- ▲ 명분을 강조한 편파성 설명 제시 등 편파적 정치현안 질문



한국갤럽 해명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어떠한 질문도 완벽할 수 없어 판단에 맡긴다”

첨예한 정치현안에 대한 조사설문의 편파성 지적에 대해 “완벽할 수 없다” 라고 해명하는 것은 편파성 조사설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고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지켜져야 하는 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임.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의 여론왜곡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못 할망정, 앞으로도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왜곡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태도임.

갤럽변명 다섯째, 미국갤럽 항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고 지적하라 ?

자유한국당의 항후 조치 中

한국갤럽의 선거예측 실패, 설문 오류, 편파적 조사설계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 본사에 항의 공문 전달



한국갤럽 해명

“미국갤럽과 무관하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한국갤럽 여론조작 실태’ 를 접한 국민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으로 생각됨. 많은 국민들과 기업은 물론 언론사, 정당, 후보자들은 ‘갤럽’ 의 사회적 인지도를 믿어 조사를 의뢰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음.

한국갤럽은 미국갤럽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인 ‘갤럽’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막연한 신뢰에 무임승차해 왔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임. 자유한국당은 한국갤럽이 저조한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서 오는 부당하게 혜택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였음.

그 일환으로 미국갤럽 본사에 한국갤럽의 실태에 대해 항의공문을 보내고자 하는 것임. 공문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바라며 즉각 발송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공문내용 별첨

2016년 20대 총선, 한국갤럽 예측 실제결과와 매우 다름

- 격차가 크거나, 정반대로 나타난 경우 52.2% 차지

한국갤럽의 자기반성 없는 구차한 변명일색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전하며, 2016년 실시한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당선자 예측을 잘못된 곳이 8군데 전체의 34.8%를 이뤘으며, 수십 %차이의 우세를 예측하였으나 매우 치열한 경합을 보였던 경우 등 4곳(17.4%) 도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었음.

여론조사 이후 돌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23곳 중 8곳이고, 1-2위 후보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득표의 예측 격차가 매우 큰 경우도 4군데나 달한다는 것은 한국갤럽의 신뢰성에 대해 깊이 재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2016년 20대 총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

*2016.4.1.~선거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 23건 분석

구분	연번	일시 (등록일)	지역	내용			후보간 격차
				갤럽예측	실제당선	후보명 득표율	
한국갤럽 조사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가 정반대	1	4. 3	제주 제주시갑	갤럽예측	새)양치석 36.5	민)강창일 34.0	+2.5
				실제당선	새)양치석 36.7	민)강창일 47.9	-11.2
	2	4. 4	제주 제주시을	갤럽예측	새)부상일 42.4	민)오영훈 32.3	+10.1
				실제당선	새)부상일 42.2	민)오영훈 45.1	-2.9
	3	4. 4	경남 창원성산	갤럽예측	새)강기운 36.6	정)노회찬 33.2	+3.4
				실제당선	새)강기운 40.2	정)노회찬 51.5	-11.3
	4	4. 5	제주 서귀포시	갤럽예측	새)강지용 41.4	민)위성근 36.8	+4.6
				실제당선	새)강지용 46.4	민)위성근 53.5	-7.1
5	4. 6	울산 동구	갤럽예측	새)안효대 34.2	무)김종훈 32.6	+1.6	
			실제당선	새)안효대 32.7	무)김종훈 58.8	-26.1	
6	4. 7	충북 청주서원	갤럽예측	새)최현호 34.5	민)오제세 32.9	+1.6	
			실제당선	새)최현호 42.2	민)오제세 43.5	-1.3	
7	4. 7	충북 청주청원	갤럽예측	새)오성균 33.3	민)변재일 30.8	+2.5	
			실제당선	새)오성균 38.8	민)변재일 42.6	-3.8	
8	4. 7	충북 청주흥덕	갤럽예측	새)송태영 31.9	민)도종환 29.3	+2.6	
			실제당선	새)송태영 36.6	민)도종환 45.7	-9.1	
한국갤럽 조사결과와 실제 선거결과간 차이가 큼	1	4. 6	울산 중구	갤럽예측	새)정갑윤 52.1	민)이철수 11.4	+40.7
				실제당선	새)정갑윤 46.9	노)이향희 20.5	+26.4
	2	4. 6	충북 청주상당	갤럽예측	새)정우택 45.7	민)한범덕 31.5	+14.2
				실제당선	새)정우택 49.2	민)한범덕 47.1	+2.1
3	4. 6	울산 남구갑	갤럽예측	새)이채익 44.1	민)심규명 18.1	+26.0	
			실제당선	새)이채익 42.1	민)심규명 39.8	+2.3	
4	4. 6	울산 남구을	갤럽예측	새)박맹우 46.8	무)송철호 23.1	+23.7	
			실제당선	새)박맹우 42.9	무)송철호 40.6	+2.3	
-	1	4. 4	경남 김해갑	갤럽예측	새)홍태용 30.0	민)민홍철 37.2	
				실제당선	새)홍태용 39.4	민)민홍철 55.9	
	2	4. 4	경남 김해을	갤럽예측	새)이만기 37.0	민)김경수 44.3	
				실제당선	새)이만기 34.4	민)김경수 62.3	
	3	4. 4	경남 밀양 의령함안창녕	갤럽예측	새)엄용수 28.3	무)조해진 25.1	
				실제당선	새)엄용수 41.6	무)조해진 38.7	
	4	4. 6	울산 울주군	갤럽예측	새)김두겸 22.7	무)강길부 38.5	
				실제당선	새)김두겸 28.2	무)강길부 40.2	
	5	4. 6	울산 북구	갤럽예측	새)윤두환 33.7	무)윤종오 47.7	
				실제당선	새)윤두환 38.5	무)윤종오 61.4	
	6	4. 7	경기 시흥시갑	갤럽예측	새)함진규 43.3	민)백원우 26.3	
실제당선				새)함진규 46.4	민)백원우 41.1		
7	4. 7	경기 시흥시을	갤럽예측	새)김순택 24.7	민)조정식 40.2		
			실제당선	새)김순택 29.6	민)조정식 47.0		
8	4. 7	충북 제천단양	갤럽예측	새)권석창 49.2	민)이후삼 18.5		
			실제당선	새)권석창 58.1	민)이후삼 32.9		
9	4. 7	충북 보은 옥천영동괴산	갤럽예측	새)박덕흠 47.0	민)이재한 21.7		
			실제당선	새)박덕흠 56.6	민)이재한 43.3		
10	4. 7	충북 증평진천 음성	갤럽예측	새)경대수 39.0	민)임해중 25.5		
			실제당선	새)경대수 45.0	민)임해중 39.5		
11	4. 7	충북 충주	갤럽예측	새)이종배 59.9	민)윤홍락 18.0		
			실제당선	새)이종배 61.0	민)윤홍락 38.9		

선출직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고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론조사의 수치가 참고 되고 있음. 단순히 ‘예측’이라는 의미로 치부하며 편파성을 간과한다면 향후에는 조사기관이 작심하며 띄운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한국갤럽은 자유한국당의 사실에 근거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된 수치로 국민들을 우롱한 점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으로 향후 쏟아질 지방선거 예측조사나 정당지지도 조사에 보다 정확도를 기해주길 간곡히 당부함.

2018. 3. 13(화)

자유한국당 홍보본부

<별첨> 미국갤럽 발송용 한국갤럽의 문제점 항의공문

<참고> 한국갤럽 1차 보도자료(3.5) “한국갤럽 여론조작 사례 및 개선방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 참조)